



윤석민 배짱투, ML 핵타선 잠재웠다

〈베네수엘라 메이저리거 22명〉

4강 승리주역 윤석민 本報 전화 인터뷰

“생각지 못했던 결승이다. 이제는 우승이다.”

KIA 타이거즈의 윤석민이 22일 베네수엘라와의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준결승에서 선발로 등판해 6과 3분의1이닝 동안 2실점으로 호투하며 팀의 결승 진출을 이끌었다. 윤석민은 “선발 통보를 받은 뒤 크게 떨리지는 않았다”면서 “4강을 목표로 대회에 출전했지만 결승 진출은 생각지 못한 만큼 더욱 기분이 좋다”고 승리 소감을 밝혔다.

윤석민은 또 “타선의 든든한 지원과 박경완 선배의 뛰어난 리드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동료들에게 승리의 공을 돌렸다. 마운드에서 서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윤석민은 초구부터 적극적으로 스트라이크 승부를 하는 등 96개의 공 중 60개를 스트라이크로 던지며 상대 타선을 압도했다.

윤석민은 이날 피칭에 대해 “투수가 타자를 잡기 위해서는 당연히 스트라이크를 던져야 한다”며 “평소와 같이 공격적으로 피칭을 했고, 변화구 제구가 잘 돼서 쉽게 경기를 풀어 나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메이저리거 강타자들이 즐비한 베네수엘라 타선은



‘배짱’으로 맞선 윤석민의 빠른 직구와 명품 슬라이더, 체인지업에 속수무책이었다. 윤석민은 3회 연속 3안타로 1실점을 한 뒤, 1사 1·2루에서 바비 어브레이유를 땅볼로 돌려 세우고 ‘거포’ 미겔 카브레라마저 플라리로 요리하며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도 과시했다. 4, 5, 6회는 두 개의 삼진과 병살타를 결투 삼자범퇴로 완벽하게 막았다. 7회 선두타자 카를로스 기엔에게 솔로 홈런을 맞은 것에 대해서는 “방심했다”며 “상대 타자들이 변화구에 많이 속아서 긴장도 풀리고, 자신감이 불어 투스트라이크 노블에서 쉽게 승부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석민은 현란한 투구로 6과 3분의1이닝을 2실점으로 막은 뒤 마운드를 내려와 다저스타디움을 가득 채운 관중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경기가 끝난 후 늦은 저녁으로 하루 일정을 마감한 윤석민은 승리의 기쁨은 결승이 끝난 뒤 만끽할 생각이다. “아직 결승이 남은 만큼, 특별한 행사 없이 오늘 일정을 끝냈다. 선수들 모두 잠으로 피로를 풀 뒤 결승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할 예정이다.”

24일 만나게 될 최후의 격돌 상대가 누가 되든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고조된 선수단 분위기도 전했다.

윤석민은 “일본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많이 불어 결승에서 다시 붙었으면 하는 생각도 하고, 아직 맞붙어 보지 못한 미국과 결승을 치렀으면 하는 생각들도 한다”며 “어떤 상대를 만나더라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경기에 나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공격적 피칭
슬라이더·체인지업 잘 먹혀
경기 쉽게 풀었다 ”

해외파 추신수
부진 탈출 3점포
“결승에서도 한방”

태극전사 모두가 수훈선수... “美·日 누구든 와라!”

오늘 미·일 승자와 내일 오전 10시 정상 다툼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위대한 도전’에 나선 한국 야구대표팀이 이제 정상 정복에 한 걸음만 남겼다.

3년 전 1회 대회 때 ‘기적의 4강’에 올랐고 지난 해 베이징올림픽에서는 9전 전승으로 금메달을 차지하는 등 최근 한국야구의 기량이 급성장했지만 야구 중 주축 미국, 메이저리거들이 우글거리는 중남미 국가, 최강 투수력을 자랑하는 일본 등 강호를 통과하는데서 4강에만 올라도 성공이라는 평가였다.

그러나 한국야구는 스스로도 몰랐을 만큼 기량이 업그레이드돼 있었다.

일본과의 ‘야구전쟁’에서는 여유까지 보이면서 2승 2패를 기록했고 강호 멕시코를 8-2로 격파한 데 이어 주전 전원이 메이저리거 스타들로 구성된 베네수엘라를 10-2로 대파했다.

야구 중주축 미국은 엔트리 28명이 전원 메이저리거들로 구성된 만큼 실명이 필요없는 강팀이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투타에 걸쳐 불안감을 노출하며 힘겹게 준결승에 진출했다.

미국이 일본을 이길 경우 결승전에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는 제이크 피비는 지난 해 10승11패, 평균자책점 2.85를 기록한 샌디에이고 파드레스의 에이스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2경기에 등판했지만 불과 5이닝 동안 8점을 허용할 정도로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다.

공격력은 홈런 11방을 기록하며 팀 타율 0.303을 기록했지만 이번 대회에서 최고의 투구를 이어가고 있

는 한국 마운드가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반면 ‘영원한 라이벌’ 일본이 미국을 꺾고 결승에 오르게 되면 우승컵을 놓고 5번째 ‘야구전쟁’을 벌이게 된다.

이번 대회 참가국 중 최강 투수력을 지닌 일본은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최강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한일전이라는 특성상 분위기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압도하고 있다.

일본이 자랑하는 선발 삼총사 중에서 마쓰자카 다이스케는 미국과 준결승에 등판할 예정이어서 결승

에는 나올 수 없고, 다르빗슈 유 또는 이와쿠마 히사시가 결승전 등판이 예상되지만 둘 모두 이번 대회에서 한국전 패배의 아픔을 맛 본 투수들이다.

경기를 치를수록 공격과 수비의 균형과 조직력이 강화되며 사기마저 크게 오른 태극전사들은 이제 미국이나 일본, 어느 팀이 올라오더라도 첫 우승컵을 차지하겠다는 다부진 각오를 다지고 있다.

한편 한국 야구대표팀은 남미의 강호 베네수엘라를 10-2로 꺾고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결승에 진출했다.

집중력의 차이가 승부를 좌우했다. 1회초 한국의 선

두타자 이용규가 풀카운트까지는 접전 끝에 볼넷으로 출루한 사이 베네수엘라 우익수 바비 어브레이유는 2번 정근우의 평범한 땅볼을 놓치며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이어 무사 1·2루 김현수의 좌전안타로 1-0으로 앞서 나간 한국은 무사 만루에서 이대호의 땅볼로 추가 점수를 낸 뒤, 추신수의 쓰리런으로 1회에만 5점을 쓸어담았다.

이날 2개의 홈런을 포함 10개의 안타를 때려낸 한국은 볼넷도 8개나 얻어내는 등 타선의 집중력으로 10점을 뽑아냈다. 하지만 메이저리거들을 전면에 내세운 베네수엘라 9명의 안타를 가지고도 주루 미스와 병살타 등으로 공격의 맥이 끊겨 2점을 만드는데 그치며 무릎을 꿇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연합뉴스